

야구

4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후반기 최강자 두산, 선두 SK 잡고 4.5경기차 추격



두산 오재원이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전 8회 말 2사 만루 때 3루에 있다 홈 스티일에 성공한 뒤 포효하고 있다. 두산 소속 선수의 홈 스티일은 1998년 5월 5일 정수근(은퇴) 이후 21년만이다. 이날 승리로 2위 두산은 선두 SK와의 승차를 4.5경기차로 줄였다. 정철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28일 게임 브리핑

양현종 1500탈삼진 위업 레일리 '8월 무승' 불운

●양현종, 통산 5번째 1500탈삼진 달성

KIA 양현종이 28일 광주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5.1이닝 동안 107구를 던지며 6안타 4볼넷 5삼진 1실점으로 팀의 5-1 승리를 이끌고 14승(7패)째를 따냈다. 최근 4연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고, 평균자책점도 2.43에서 2.40(164.2이닝 44자책점)으로 좋아졌다. 20승을 따낸 2017시즌 이후 2년만의 15승 달성도 눈앞에 뒀다. 1회 1사 후삼성 박계범을 삼진으로 속아내며 역대 5번째 개인통산 1500삼진의 대기록도 작성했다.

●3연속 QS에도...롯데 레일리 '8월 무승'

롯데 브룩스 레일리가 3연속경기 켈리 타이 스타트(QS·선발 등판 6이닝 3자책점 이내)를 작성하고도 '무승'으로 8월을 마쳤다. 레일리는 28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LG와의 홈경기 선발 등판해 6.2이닝 5안타 5삼진 2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3점의 득점 지원을 얻은 레일리는 승리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넘겨줬지만 8회 구원 투수 진명호가 동점을 허용하면서 시즌 6승 달성이 눈앞에서 무산됐다. 레일리는 이날 LG전을 포함해 최근 6경기에서 5차례의 QS를 기록했지만 개인 4연패를 기록 중이다.

●SK, 정규시즌 우승 확정시 소사부터 휴식

SK 영검업 감독은 28일 잠실 두산전에 앞서 외국인투수 헨리 소사에 대해 언급하며 "쉬지 않고 계속 등판해 70구가 넘어가면 힘이 떨어지더라"며 "순위가 정해지면 선발진 가운데 가장 먼저 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사는 KBO리그 북구전인 6월 9일 인천 삼성전부터 27일 두산전까지 한번도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으며 13경기 8승 2패, 평균자책점 3.28의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두산전에서 5.2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2-4 패배를 막지 못해 12경기 만에 시즌 2번째 패전 명예를 안았다.

●박민우, 어깨부상 출장 불가

NC 리드오프 박민우가 어깨 근육 손상으로 회복 속도에 따라 2~3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NC 이동욱 감독은 장원 K T전을 앞두고 "박민우가 27일 타격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검진 결과 왼쪽 어깨 근육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며 "엔트릭에서 제외될 정도의 부상은 아니다. 다만 회복될 때까지 출전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민우는 28일까지 101경기에서 타율 0.337(380타수 128안타) 17도루 OPS 0.833을 기록했다.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

최근 10경기 9승1패 압도적 상승세 살아난 집중력...후반기 역전승 최다 SK와 남은 맞대결 3번 '대역전 희망'

두산 베어스의 하반기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른다. SK 와이번스와 홈 2연전을 모두 손에 넣으며 다시 선두 싸움에 뛰어 들 준비를 마쳤다.

2위 두산은 28일 잠실 SK전에서 4-2로 승리를 거두며 6연승과 더불어 시즌 전적 74승47패를 마크했다. 3연패에 빠진 선두 SK(79승14무43패)와 격차를 4.5경기까지 줄이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남은 시즌 SK와 세 차례 맞대결이 더 남아있어 대역전 드라마의 희망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후반기 페이스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24경기에서 17승7패를 거뒀고, 28일 포함 최근 10경기에선 9승1패를 기록하며 타 팀을 압도하고 있다. 전반기 막판 집단 침체에 빠졌던 타선이 살아난 데다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외국인선수 세스 후랭코프가 반전을 일으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 탓에 코칭스태프의 격정거리였던 후랭코프는 하반기 5경기에서 3승(1패), 평균자책점 2.36으로 환골탈태했다. 28일에는 동료들의 수비 도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이닝 2안타 2볼넷 8삼진 2실점(1자책점)의 뛰어난 투구로 7승(7패)째를 따냈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특유의 집중력에 살아났다. 하반기 역전승이 7차례로 10개구단 중 가장 많고, 역전패는

2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5회까지 끌려가던 경기에서도 3승4패(0.429)를 기록 중인 데 이는 상대 팀이 끝까지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 의미가 작지 않다. 반대로 5회까지 앞선 13경기에선 12승1패(승률 0.923)를 기록했다. 웬만해선 상대가 파고들 틈을 주지 않은 것이다. 복귀를 기대했던 '파이어볼러' 김강철의 합류가 어려워진 데다 김승희, 박치국 등 핵심 카드가 이탈한 불펜의 선전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에도 늘 상위권을 유지한 저력은 향후 선두 싸움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김 감독은 SK전에 앞서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 부상을 조심하면서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하게 욕심을 내기보다 후반기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뜻이었다. 사령탑의 바람대로 선수들은 경기 내내 SK를 긴장케 했고, 0-2로 뒤진 6회 1사 후 5연속 안타(오재일~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최주환~박세혁~허경민)를 몰아치며 역전에 성공했다. 윤명준(1.1이닝)~권혁(0.2이닝)의 필승계 투조와 마무리 이형범(1이닝)은 3이닝 퍼펙트 피칭을 합작하며 승리를 지켰다. '캡틴' 오재원은 8회말 3루에서 SK 배터리가 다소 느린 속도로 공을 주고받는 틈을 놓치지 않고 홈스틸로 득점하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한창 잘 나갈 때 두산의 승리 공식이 그대로 나타난 한편이었다.

사실상 SK의 독주로 굳어지는 듯했던 선두 싸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그 불을 지핀 팀은 '후반기 최강자' 두산이다. 정철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한화 뉴 페이스 김진영 첫 1군 선발 '합격점'

키움전 5.1이닝 1K 1실점 역투 6연패 탈출...선발진 활기 기대

최하위 한화 이글스가 천신만고 끝에 시즌 3번째 7연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발 김진영과 신정락~김범수~이태양을 거쳐 마무리 정우람으로 이어진 마운드가 모처럼 1실점으로 버텨준 데 힘입어 전날의 0-15 참패를 설욕했다. 한화는 28일 청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2-1로 이겨 최근 6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우완 김진영이 키움의 강타선을 5.1이닝 4안타 3볼넷 1삼진 1실점으로 막아준 덕이다. 작구 최고 구속은 143km에 불과했지만, 낮게 깔아 던지는 제구력과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비껴가는 유인구로 집중타를 피했다. 1회 2사 만루선 김규민을 내야방울, 5회 1사 1·2루선 이정후를 유격수쪽 병살타로 유도해 실점을 최소화했다.

1-0으로 앞선 6회 1사 2루서 공을 신정락에게 넘기고 임무를 마쳤다. 신정락이



김진영

곧바로 박병호에게 동점 2루타를 허용해 데뷔 첫 승은 놓쳤지만, 시즌 첫 등판이었던 22일 인천 SK 와이번스전 구원 4이닝 3안타 1실점의 기세를 잇는 능률한 피칭이었다.

김진영은 덕수고 출신으로 2010년 시카고 컵스와 계약한 유망주였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입성에 실패한 채 국내로 돌아와 2017년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한화에 입단했다. 2017년 3경기, 2018년 4경기 등판이 고작이었다. 미국에서 당한 어깨 부상의

여파로 올 시즌 대부분을 2군에서 보내다가 이달 21일야에 처음 1군에 등극했다. 2군 성적은 8경기에서 3승1패, 평균자책점 5.82.

힘이 실린 공과 승부욕을 눈여겨보았던 한용덕 감독이 14일 2군 마지막 선발등판에서 6이닝 2안타 1볼넷 7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자 1군으로 호출했다. 당시 한 감독은 "직구는 최고 144km까지 나온다. 하지만 공을 던질 줄 안다"며 선발 활용 의사를 밝혔다. 시즌 첫 1군 선발등판에서 감독의 기대에 호응한 김진영이 남은 시즌 한화 선발진에 활기를 불어넣어줄지 궁금하다. 청주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새 신인지명 제도가 만든 '애매한 8위 싸움'

내년부터 1차 지명 '새 규정' 적용 서울 팀 동일 학교 중복 지명 금지 8~10위 팀, 전체 연고 지명 혜택 가을야구 못할 바에는 8위가 유리

"내년 신인지명을 생각하면 차라리 7위 보다는 8위가 훨씬 좋다."

"내년에는 서울 소재 고교 출신 1차지명이 6명 나올 수도 있다."

26일 열린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회의 때 각 팀 프런트 사이에서 오갈말이다. 연고지 지명과 팀 순위에 따라 역순

으로 지명하는 1·2차 지명 시스템이 오히려 유지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1차 지명 폐지·전면드래프트 제도입은 2022년 열리는 2023년 신인지명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 신인지명에는 1차지명이 유지되나 올해와는 다른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하위 8~10위 팀은 1~7위 1차 지명 후 전체 연고지역 선수를 대상으로 1차 지명을 할 수 있다. 특히 새 규정 속에는 '서울 3개 팀(두산 베어스·키움 히어로즈·LG 트윈스)이 동일 학교에서 중복해 1차 지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8~10위 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다. 서울의 야구 명문 고교에서 배출된 3학년 중 단 한명만 1차 지명 대상이 될 수 있어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8~10위 팀의 1차 지명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면 드래프트까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지만 7위 팀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어차피 7위나 8위나 포스트시즌에 못 나가는데 연고지 고교에 대형 유망주가 없다면 차라리 8위가 유리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제도는 1차지명 폐지와 전면 드래프트 도입까지 2년 동안 하위권 팀들의 전력 보강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에서 유망주를 뽑는다는 1차 지명의 원칙이 스스로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쉽다. 유망주가 많이 배출

되는 서울에서 두산과 키움, LG 서울 3팀에 이어 하위8~10위 팀이 모두 서울 출신을 선택하면 전체 10명 중 6명의 1차지명 선수가 같은 지역 출신이 되는 기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2019 KBO리그 페넌트레이스가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근소한 차이로 7·8위를 기록 중이다.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지만 5·6위권, 9·10위권과는 격차가 크다. 야구 현장에는 "6위부터 10위는 모두 똑같은 순위다"는 말이 있다. 포스트시즌에서 떨어지면 하위권 순위 경쟁 보다는 미래를 위해 유망주를 기용하고 세대교체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는 이 말의 해석이 복잡해졌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